

## 촬영허가 가이드라인(제37조 및 제41조 등 관련)

구분	세 부 내 용	비고
기본 방침	1. 유적관리소에서의 촬영은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,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. 2. 유적관리소에서의 촬영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	
내용	3. 살인·폭력·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. 4.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.	
관리	5. 1개월 중 휴관일의 50%는 유적관리소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. 6. 작품 당 유적관리소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. 7. TV드라마, 극영화,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. 8. 결혼사진 촬영은 사전에 유적관리소의 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가. 결혼사진의 촬영요금은 관람객의 추억용에 해당되어 무료 9. 별표2의 동영상촬영 중 ⑩ 영화 등 촬영은 해당 유적관리소를 피보험인으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10. 촬영의 세부사항은 유적관리소와 협의하고,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 11.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소와 협의 없이 특별한 사정없이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. 12.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·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유적관리소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. 13.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4.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15. 신청자(사업자)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. 16. 신청자(사업자)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17. 신청자(사업자)는 해당 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. 18. 신청자(사업자)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적관리소 보존·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.	
장비 및 소품	19. 박석·월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,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. 20.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. 21. 박석·월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. 22.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. 23.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. 24. 반입 불가 품목 가.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(담배,ライター, 가스통 등 인화물질) 나.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. 인공비, 인공눈,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.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·우마차·마필 및 기타 동물 등	